



## 국제 의료인이 되는 길

결론부터 말하자면, 헝가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으로의 진출을 꿈꾸게 됩니다. 또한, 그 꿈이 곧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지난 30 여년 간 배출한 수 많은 졸업생들을 통해 저희 페치 의과대학은 당당히 증명해보였습니다(\*페치 의과대학의 영어 학부는 30년, 헝가리어 학부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있습니다).

미국.캐나다.영국.아일랜드.호주.뉴질랜드  
이탈리아.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스위스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  
스페인.포르투갈.그리스.이스라엘.요르단.이란  
일본.베트남.홍콩.중국.대만.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인도  
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 공화국.르완다.이집트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멕시코.파라과이  
대한민국

페치 의과대학을 거쳐간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

지난 30년 동안, 이 모든 국가들로부터 자랑스러운 페치 의과대학의 “영어 학부”를 통해, “외국인”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음은 바로 “국제 의료인”이 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자 꿈꾸는 수 많은 청소년들 중에서 “WHO/적십자/국경없는 의사회” 등과 같은 유명한 국제 의료/구호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숫자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까닭은, 대부분의 기관/단체에서 필수 요건으로써 “전문의로서 3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스페인어” 등과 같은 또 다른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능력이 뛰어나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외국 언어와 문화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준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한정된 기회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미국/캐나다/독일/스위스 등과 같은 의료 선진국으로의 취업을 위한 과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구어낼 수 있는 “성적 및 어학 능력” 등과 더불어, “노동 허가”와 같은 국가 기관에서의 도움 또한 중요한 절반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연히 “국제 의료인이 되겠다”는 생각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민과 취업”이라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성공 확률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쉽게 보장되는 루트가 바로 “전문직, 그 중에서도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 규모에 비해 직업의 종류나 영토의 크기가 작은 국가에서 배출하는 수 많은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에게는 그 성공 확률이 결코 낮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를 비롯한 유럽의 중소 국가들에서 유학을 통한 진로 개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의 유학 경험에 비해 훨씬 더 큰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과 이민”이라는 극도로 현실적인 키워드를 두고 고민하신다면, 바로 저희 페치 의과대학을 통하여 “국제 의료인”이 되는 길 또한 무척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